중세철학에 담긴 인류 문화의 보고를 찾아

철학과의 박승찬 교수는 2019년에 「중세시대 신존재 증명의 전제와 유효성」, 「중세 시대의 '세계의 영원성' 논쟁」(『가톨릭철학』),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통한 5·18 정신의 계승」(『신학전망』) 등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저 중에 하나인 『존재자와 본질』 에 대해 원고지 2000매에 달하는 방대한 해설서를 탈고하여 출판 준비 중(길출판사)에 있다. 중세 철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주요 철학 개념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해설, 풍부한 연구 성과 소개 등을 첨가했다. 이 책을 통해서 아퀴나스의 전 작품을 관통하는 형이상학의 체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중세 철학이 도달했던 수준 높은 성과가 밝혀질 것이다.

박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10년 동안의 유학생활을 통해 중세철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학위 논문은 네덜란드 Brill 출판사의 중세철학 분야의 핵심시리즈인 '중세 정신사에 대한 연구와 텍스트'에 받아들여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한 중세 언어철학의 신학적 수용: 유비(類比)문제를 중심으로』(1999)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1998년 귀국한 이래 『서양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수용사』,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 1 & 2』(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 『중세의 재발견』(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 『생각하고 토론하는 서양 철학 이야기 ②: 중세-신학과의 만남』 등 8권의 저서와, 『철학의 멘토, 멘토의 철학』를 비롯한 14권의 공저서를 출간했다. 또한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의 『모놀로기온 & 프로슬로기온』(학술원 선정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요강』과 『대이교도대전II』를 라틴어 원문으로부터 번역했고, L. 엘더스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도 번역했다.

54편에 달하는 논문에서 다룬 주요 주제들은 「스콜라철학 융성기의 언어철학」, 「유비개념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한 가능태 이론의 변형」, 「인격개념의 근원과 발전에 대한 탐구」, 「생명의 원리에서 인격의 중심에로 -서양철학적 관점에서 본 영혼론」, 「참된 교육을 위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실천적 조언」 , 「중세 대학의 설립과 발전」 , 「김수환 추기경 평화사상의 인문학적인 배경」 등이 있다.

박 교수의 주요관심 연구 분야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라틴어 중세철학 원전에 담긴 보화를 우리나라에 적극 소개하고, 중세철학이라는 인류 문화의 보고로부터 우리 문화를 풍성하게 할 값진 사상을 얻어내는 데에 있다. 그의 '중세철학사' 강의는 2012년 11월에 SBS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학 100대 명강의"로 선정되었다.
박승찬 교수가 플라톤 아카데미 "Who am I 2"에서 행한 강연(SBS-CNBC 방영,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 JTBC 차이나는 클라스(중세 천년의 빛과 그림자), EBS 통찰(12세기 르네상스와 스콜라철학의 태동, 13세기 중세 문화의 황금기 등) 그리고 평화방송에서 강연한 "그리스도교, 서양문화의 어머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만나다"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유투브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또한 그의 "중세철학사"와 "서양철학의 전통" 강의는 각 대학의 주요강의들을 소개하고 있는 KOCW(Korea Open Courseware)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 www.kocw.net>대학강의>가톨릭대학교>에서 1학기 전체 분량의 강의 시청이 가능하다. 이 강의들도 KOCW 인문학분야 최고 인기 강의로 자리 잡았다.

■ 향후 연구 계획

중세 철학 원전에 대한 번역(토마스 아퀴나스의 『'삼위일체론' 주해』 , 『'신학대전' 해설서』 등)과 연구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영혼 불멸성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해」 ,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안에 나타난 지식과 지혜의 구분」 , 『인격 개념의 기원(가제)』 등) 그런데 이에 덧붙여서 2018년부터 김수환추기경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새롭게 시작된 김수환추기경 사상에 대한 연구도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한 김수환추기경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전통과의 비교 연구가 필수적이다.(「김수환 추기경 인간 존중 사상의 인문학적 배경」 등) 따라서 그리스도교 사상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가치를 한국 사회에서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약력 및 주요 활동

현재 본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성심대학원장과 한국중세철학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한국가톨릭철학회장과 가톨릭신학과사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실적

1. 연구논문

1.1.「서평: 제임스 와이스헤이플,『토마스 아퀴나스 수사-생애, 작품, 사상』이재룡 옮김,성바오로 출판사」,『가톨릭 신학과 사상』제25호(1998/가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87-292쪽.

1.2.「스콜라철학 융성기의 언어철학 - 13세기초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제11회 한국철학자 연합학술대회 대회보』1998, 234-245쪽.

1.3.「유비개념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 토마스 아퀴나스 유비이론 입문」,『가톨릭 신학과 사상』제26호(1998/겨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39-165쪽.

1.4.「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개념에 대한 재조명」, 『신학과 철학』창간호 (1999), 서강대학교 비교사상연구원, 177-219쪽 = 그리스도교 철학연구소 편, 『현대 사회와 자유』,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226-276쪽.

1.5.「유비개념의 신학적 적용 -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I부 제13문제를 중심으로」,『가톨릭 신학과 사상』제28호(1999/여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81-208쪽.

1.6.「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나타난 신앙과 이성ㅡ제1부 제1문제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중심으로」,『가톨릭 신학과 사상』제30호(1999/겨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54-187쪽.

1.7.「인간 고통의 의미- 그리스도교 고통이해에 관한 인간학적 고찰」,『인간 연구』, 창간호 (2000년), 159-189쪽.

1.8.「하느님 명칭의 올바른 사용 -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에 관한 철학적 성찰」, 『가톨릭 신학과 사상』제32호(2000/여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7-54쪽.

1.9.「중세 언어철학의 발전 - 스콜라 철학 융성기의 혁신을 중심으로」, 『중세철학』, 제6호 (2000), 분도출판사, 125-151쪽.

1.10.「중세학문에서의 논리학의 역할 -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을 중심으로」,『제13회 한국철학자 연합학술대회 대회보2』, 2000, 423-437쪽.

1.11.「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수용과 스콜라철학의 발전-13세기 중세대학 설립기를 중심으로」, 『가톨릭철학』제3호 (2001), 한국가톨릭철학회, 119-157쪽.

1.12.「중세학문에서의 논리학의 역할 -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53집, (2001/여름), 117-136쪽.

1.13.「스콜라학」,『한국가톨릭 대사전』, 제8권(2001), 5239-5250쪽. (정의채신부와 공저)

1.14.「아베로에스」, 『한국가톨릭 대사전』, 제8권(2001), 5665-5667쪽.

1.15.「아벨라르두스」, 『한국가톨릭 대사전』, 제8권(2001), 5670-5673쪽.

1.16.「안셀모, 캔터베리의」, 『한국가톨릭 대사전』, 제8권(2001), 5809-5812쪽.

1.17. "Die Differenz von persönlicher und unpersönlicher Möglichkeit bei Thomas von Aquin"(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에 나타난 인격적 가능성과 비인격적 가능성의 차이), in: Thomas Buchheim / Corneille Henri Kneepkens / Kuno Lorenz (eds.), *Potentialität und Possibilität - Modalaussagen in der Geschichte der Metaphysik*, Stuttgart-Bad Cannstatt: fromman-holzboog, 2001, pp.(『능력성과 가능성: 형이상학의 역사 안에 나타난 양태진술들』), frommann-holzboog 2001, pp.147-164.

1.18.「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항상 더욱 크신 분'」, 우리사상연구소 엮음,『우리말 철학사전2: 생명.상징.예술』, 서울: 지식산업사, 2002, 353-392쪽.
1.19.「토마스 아퀴나스의 여성관 - '우연히 생산된 결핍존재' 또는 '남성의 가장 가까운 벗'」,『성평등연구』6 (2002), 161-197쪽.
1.20.「영원하신 아버지」,『한국가톨릭 대사전』, 제9권(2002), 6289-6291쪽. (2002.8.31)
1.21.「유비」,『한국가톨릭 대사전』, 제9권(2002), 6789-6790쪽.(2002.8.31)
1.22.「학문간의 연계성 - 중세 대학의 학문 분류와 교과과정에 대한 고찰」,『철학』74 (2003/봄), 53-78쪽.
1.23「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른 신앙과 이성의 조화: 제삼천년기를 맞는 한국교회의 귀감」,『시간과 영원 사이의 진리 - 정의채신부 사제서품 50주년기념논문집』, 화성: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3, 239-280쪽.
1.24「아리스토텔레스 학문 체계에 대한 중세의 비판적 수용-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해서를 중심으로」,『중세철학』, 제9호 (2003), 한국중세철학회, 145-190쪽.
1.25「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의 중세 라틴어 번역 형성과정 및 그 영향」,『인문과학연구』, 제8호 (2003),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63-202쪽.
1.26「자유학예」,『한국가톨릭 대사전』, 제10권(2004), 7281-7284쪽.
1.27「중세철학」,『한국가톨릭 대사전』, 제10권(2004), 7916-7924쪽.
1.28「질료형상론」,『한국가톨릭 대사전』, 제10권(2004), 8022-8024쪽.
1.29「'신의 모상'으로 창조된 여성의 진정한 가치- 토마스 아퀴나스의 여성이해에 대한 비판적 성찰」,『가톨릭철학』7 (2005), 148-190쪽.
1.30「유비개념의 다양한 분류에 대한 비판적 성찰 -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카예타누스의 해석을 중심으로」,『중세철학』, 제11호 (2005), 한국중세철학회, 115-170쪽.
1.31 「스콜라철학 전성기의 삼학과 체계 - 수사학의 쇠퇴를 중심으로」,『서양고전학연구』, 제25집 (2006/여름), 한국서양고전학회, 283-327쪽.
1.32 「인격개념의 근원에 대한 탐구 - 그리스도교 신학과 보에티우스의 정의를 중심으로」,『인간연구』13 (2007/가을), 83-119쪽. (2007.7.31)
1.33「인격개념의 근원과 발전에 대한 탐구 - 토마스 아퀴나스의 텍스트를 중심으로」,『중세철학』, 제13호 (2007), 한국중세철학회, 227-274 쪽.(2007.12.31)
1.34「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한 가능태 이론의 변형 -신학적 관심을 통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비판적 수용」, 『중세철학』, 제14호 (2008), 한국중세철학회, 65-105 쪽.(2008.12.31)
1.35「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에 나타난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의 구분: 그 기원에 대한 개념사적 고찰」,『철학사상』, 제33호 (2009),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37-80 쪽.(2009.8.31)
1.36「서평: 인간 지성에 대한 세기의 논쟁 - 토마스 아퀴나스,『지성단일성』(De unitate intellectus contra Averroistas), 이재경 옮김, 분도출판사, 2007」,『중세철학』, 제15호 (2009), 한국중세철학회, 219-228 쪽.(2009.12.31)
1.37「인격에 대해 영혼-육체 통일성이 지니는 의미: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철학사상』, 제35호 (2010),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61-102 쪽.(2010.2.28)
1.38「형이상학의 대상에 대한 논쟁: 철학적 신론 vs 보편적 존재론 -스콜라철학 융성기를 중심으로」,『중세철학』, 제16호 (2010), 한국중세철학회, 107-169 쪽.(2010.12.31)

1.39「생명의 원리에서 인격의 중심에로 -서양철학적 관점에서 본 영혼론」,『가톨릭 신학과 사상』제67호(2011/여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59-157쪽.(2011.06.20)

1.40「'의미된 대상과 의미 양태의 구분'과 '유비'개념의 관계-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41호 (2011),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55-306쪽.(2011.8.31)

1.41「가톨릭 교육의 스승 아우구스티누스 - 삶의 체험에 기반한 가치교육」,『가톨릭철학』17 (2011), 1-54쪽.(2011.10.31)

1.42「영혼의 불멸성과 육체의 부활이 인격에 대해 지니는 의미 -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43호 (2012),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99-151쪽.(2012.2.29)

1.43「참된 교육을 위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실천적 조언」,『가톨릭 신학과 사상』제69호(2012/여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85-126쪽.(2012.06.20)

1.44「신학적 관심에 따른 '인격'(persona)개념 정의의 변천 - 성 빅토르의 리카르두스를 중심으로」,『중세철학』, 제18호 (2012), 한국중세철학회, 161-221쪽.(2012.12.31)

1.45 「그리스도교 사상의 흐름 속에 나타난 신앙과 이성의 조화:『신앙과 이성』과『신앙의 빛』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제183호 (2013/겨울), 광주가톨릭대학교, 79-133쪽.(2013.12.28.)

1.47「인격을 이루는 원리로서의 몸 -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중심으로」,『가톨릭 신학과 사상』제73호(2014/여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7-248쪽.(2014.06.20)

1.48「그 자체로 악인 고통 안에서 선이 발견될 수 있는가? - 변신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가톨릭철학』23 (2014), 5-49쪽.(2014.10.31)

1.49「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안에 나타난 행복과 치유」,『범한철학』, 제79호 (2015), 범한철학회, 219-258쪽.(2015.12.31)

1.50「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요 저작들에 나타난 저술 방식 비교 -『대이교도대전』제II권의 인간 이해를 중심으로」, 『중세철학』, 제21호 (2015), 한국중세철학회, 71-120쪽.(2015.12.31)

1.51 「중세 대학의 설립과 발전」, 『가톨릭철학』제26호 (2016), 한국가톨릭철학회, 5-56쪽.(2016.04.30.)

1.52「중세 후기 '대학의 몰락'과 현대 대학의 위기」,『가톨릭철학』제29호 (2017), 한국가톨릭철학회, 81-115쪽.(2017.10.31.)

1.53「김수환 추기경 평화 사상의 인문학적 배경 -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가톨릭철학』제31호 (2018), 한국가톨릭철학회, 187-226쪽.(2018.10.31.)

1.54「중세시대 신존재 증명의 전제와 유효성」,『가톨릭철학』제32호 (2019), 한국가톨릭철학회, 101-138쪽.(2019.04.30.)

1.55「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통한 5.18 정신의 계승」,『신학전망』205 (2019), 광주가톨릭대 신학연구소, 2-15쪽.(2019.06.30.)

1.54「중세 시대의 '세계의 영원성' 논쟁」,『가톨릭철학』제33호 (2019), 한국가톨릭철학회, 5-64쪽.(2019.10.31.)

2. 저서

2.1 Die Rezeption der mittelalterlichen Sprachphilosphie in der Theologie des Thomas von Aquin -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Analogie, Leiden-Boston-Köln: Brill, 1999. 524쪽. (Studien und Texte zur Geistesgeschichte des Mittelalters, 65)

<u>이 저서에 대한 서평:</u>

가. 1. Rolf Darge(Köln), in: *Philosophisches Jahrbuch* 108 (2001/II), pp.342-345.

나. 2. É-H. Wéber, in: "Bulletin d'histoire des doctrines médiévales. De saint Anselme à Maître Eckhart (II)", *Revue des Sciences Philosophiques et Théologiques* 85 (2001/4), pp.702-706.

다. 3. Leo Elders, in: The *Review of Metaphysics* 54 (2001), pp.672-3.

라. 4. Harm Goris, in: *Vivarium* 40 (2002), pp.306-309.

2.2 그리스도교 철학연구소 편, 『현대 사회와 자유』,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379쪽. (공저 11인)

2.3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편저, 『사람과 사람』,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2, 429쪽. (공저 10인)

2.4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2: 생명.상징.예술』, 서울: 지식산업사, 2002, 400쪽. (공저 12인)

2.5 가톨릭교육재단 협의회 엮음, 『고등학교: 철학』, 서울: 가톨릭문화원, 2003, 229쪽. (공저 6인)

2.6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엮음, 『시간과 영원 사이의 진리 - 정의채신부 사제서품 50주년 기념논문집』, 화성: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3, 578쪽. (공저 13인)

2.7 장욱 외, 『영원을 향한 철학 - 존재와 사유, 인간과 자유: 장욱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서울: 동과서, 2004, 736쪽. (공저 22인)

2.8 박승찬,『생각하고 토론하는 서양 철학 이야기 ②: 중세-신학과의 만남』, 일러스트.최남진, 서울: 책세상, 2006. 212쪽. (단독저서)

2.9 박승찬,『서양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수용사 -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서울: 누멘, 2010. 367쪽. (단독저서 2010.8.30)

2.10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 신앙연구소 엮음, 『그리스도교 인간 이해』,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1. 480쪽. (공저 10인, 2011.06.29)「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관 -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완결된 인격체」, 195-242쪽. [ISBN: 978-89-7396-033-0 93230]

2.11 김경집 외 7인,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청소년, 인문학에 질문을 던지다』, 꿈결, 2012. 359쪽. (공저 8인, 2012.3.20)「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게 진리를 묻다」, 116-159쪽. [ISBN: 978-89-967831-3-8 43040]

2.12 강상진 외 14인,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 - 플라톤에서 마르크스까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공저 15인, 2012.6.8)「아퀴나스 - 영혼론의 새로운 체계화」, 115-149쪽.

2.13 박승찬,『고전신학 강좌: 토마스 아퀴나스』, 서울: 새길, 2012. 127쪽. (단독, 2012.10.31) [ISBN: 978-89-952825-3-3 00230]

2.14 박승찬/노성숙, 『철학의 멘토, 멘토의 철학』,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3. 356쪽. (공저 2인, 2013.3.7) [ISBN: 978-89-7108-250-8 05100]

2.15 박승찬 외 11인, 『고전의 반역 7, 사유, 삶의 바다로 닻을 올리고』, KBS 고전 아카데미 편, 서울: 나녹.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한 인간지성의 금자탑」, 74-93쪽.

2.16 박승찬 외 5인,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서울: 운주사, 2013. 325쪽. (공저 6인, 2013.11.26)「서양철학의 역사에서 고통의 의미 찾기」, 141-194쪽. [978-89-5746-363-5]

2.17 박승찬 외 4인, 『나, 우리, 반항』, (KBS 고전아카데미 01), 부산: 전망, 2014. 159쪽. (공저 5인, 2014.08.10.)「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지상을 순례하면 꿈꾼 영원한 평화」, 125-159쪽. [978-89-7973-371-6]

2.18 박승찬 외 11인, 『어떻게 살 것인가-세상이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 파주: 21세기북스, 2015. 303쪽. (공저 12인, 2015.02.27.) 「고통을 넘어 희망으로」, 190-215쪽. [978-89-509-5783-4 03100]

2.19 박승찬 외 6인, 『고전의 유혹』, 서울: 아카넷, 2015. 308쪽 (2015.05.22) [ISBN: 9788957334270]

2.20 박승찬,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 1』,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5. 363쪽. (2015.11.09) [978-89-321-1418-7 04320]

2.21 박승찬,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 2』,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6. 355쪽. (2016.06.30) [978-89-321-1444-6 04320]

2.22 박승찬 외 12인, 『서양고대철학 2 -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보에티우스까지』(서양고전학 연구총서 2), 길, 2016. 462쪽. (2016.08.25.) [978-89-44-51335]

2.23 박승찬 외 15인(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인간학연구소), 『인간의 이해 1』,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7. 282쪽. (2017.02.15.) 「나는 자유로운가」, 99-131쪽. [978-89-7108-285-04100]

2.24 박승찬 외 10인(노성숙, 철학상담연구팀, 철학교육실천팀), 『생각사이-다 - 청소년을 위한 인문상담』, 학지사, 2017. 291쪽. (2017.04.20.) 「청소년 인문상담 프로그램의 첫걸음: 질문할 수 있는 용기」, 43-79쪽. [998-89-997-1235-7 03180]

2.25 박승찬,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 - 최초의 현대인에게 배우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 가톨릭출판사, 2017. 343쪽. (2017.07.03.) [978-89-321-1485-9 03230]

2.26 박승찬, 『중세의 재발견 - 현대를 비추어보는 사상과 문화의 거울』, 도서출판 길, 2017. 256쪽. (2017.12.05.) [978-89-6445-150-2 03100]

3. 역서

3.1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모놀로기온&프로슬로기온』, 서울: 아카넷, 2002, 438쪽.(1쇄, 2002.4.25; 2쇄, 2003.11.5). 개정판: 2012, 512쪽. (개정판 1쇄: 2012.5.7).

3.2 레오 엘더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3. 646쪽. (2012, 2쇄)

3.3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요강』, 일산: 나남출판, 2008. 589쪽.

3.4 토마스 아퀴나스, 『대이교도대전 II』, 왜관: 분도출판사, 2015. 1016쪽.(2015.06.11.)